

자 기 소 개 서

성장과정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 저는 고등학생 시절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며 상대의 감정을 세심히 살피고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상담한 친구는 처음에 눈물만 흘리며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지만, 저는 곁에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여러 차례 상담을 이어가며 친구가 조금씩 고민을 나누기 시작하자, 더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 관련 서적을 2주에 한 권씩 읽으며 질문법과 경청 태도를 학습했고, 대화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며 친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은 담당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며 상담자로서의 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라는 말을 해주었고, 예전보다 웃음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경청하는 자세와 진심 어린 공감 능력을 키웠습니다. 동강병원의 간호사가 되어서도 환자의 작은 불편함에도 귀 기울이고, 신체적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성격 및 장단점

'든든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책임감 있는 성격과 꼼꼼함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간호학 실습 중, 환아의 비언어적 신호를 포착하여 안전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활발하게 놀던 아이가 갑자기 손을 털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고 즉시 주사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발적과 부종을 발견하고 곧바로 간호사 선생님께 보고하여 카테터 교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아는 큰 불편함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학생 눈썹미 좋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꼼꼼함으로 환자에게 신뢰받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반면, 긴장하면 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입시 박람회에서 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님께 학교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질문에 답하며 의식적으로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정확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동강병원에서 동료들과는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환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활동 및 사회경험

해외 직무 연수 중 낯선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역할을 찾아 수행하며 적응력을 키웠습니다. 현지 병원 수술실에 배정되었을 때 단순히 참관에 그치지 않고, 핵심 안전 절차인 타임아웃과 주요 기구 이름을 영어로 미리 학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실제 타임아웃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환자 정보와 수술 부위 등을 확인했고, 수술 후에는 거즈 카운팅 과정에도 기여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제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동강병원의 다학제 진료 환경에서도 이러한 적응력을 발휘하여, 정밀한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선도하는 동강병원의 이념에 깊이 공감하여 지원했습니다. 특히 동강TV를 통해 의학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건강 카드뉴스를 제작해 학우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를 주는 간호를 실천하며 울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 메신저’로 성장하겠습니다.

입사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하는 질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할 수 있는 근거 기반 간호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신규 간호사로서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며 실무 경험을 쌓아가겠습니다. 5년 차에는 습득한 임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후배 간호사를 이끄는 프리셉터가 되어 역할 모델로 평가받겠습니다. 또한, 병원 내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기회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켜겠습니다. 15년 차에는 관리자 위치에서 조직 운영을 조화롭게 이끌고 동강병원의 '환자중심'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